

#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10강 바벨론시대 문학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0, 바빌로니아 시대 문학입니다.

다음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왕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이 시기, 즉 대략 기원전 1800년에서 1600년까지 이어지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가 히브리어 성경과 그 세계를 연결하는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블릿이 발견된 일련의 사이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수업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사이트는 Mari라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 계정인 Enuma Elish라고 하는데, 이 계정은 실제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가메시 서사시 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다양한 문학적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펴볼 첫 번째 것은 마리 재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히소스에 대한 오래된 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상류에 있는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와 그 이전에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훌륭한 태블릿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00개의 서판이 마리 왕궁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리의 궁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가장 큰 궁전입니다. 약 2.5에이커에 달하는 300개가 넘는 법원과 방이 있었습니다.

2.5에이커의 건물은 꽤 큰 건물이다. 원래 벽화 중 일부는 여전히 증거로 남아 있으며 왕족의 삶과 아모리 예술을 표현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 때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잠시 멈춰 있습니다.

예술계는 3,600년, 거의 4,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술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이상 문앞에 페인트를 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 기술에 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문자 자체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가장 큰 단일 발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족장들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면, 1800년부터 1600년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시대일 것이고, 그보다는 덜한 정도의 요셉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예언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리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예언 인물의 정보를 구약의 선지자와 연관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비교는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의 종교 관리들이 열광 했기 때문에 히브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것을 공부한다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의 직원들은 황홀 해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예언의 핵심 개념이 엑스터시라는 개념에 예외를 두고 마리의 종교 관리들이 선지자였다는 생각에도 예외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수업 초반에 제가 평행병증 에 관한 Samuel Sandmel의 기사 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글썄요, 우리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대 근동 세계와 성경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사점이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세상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신학적 요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용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 말씀, 생각,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롭게도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유사점이 사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많은 유사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제안하는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선지자들의 핵심 개념이 황홀경 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황홀경은 직업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연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황홀경은 그 직업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두 개의 그리스어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서게 하고 그리스어 전치사를 꺼내는 그리스어 단어.

엑스타시스 에서 유래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어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바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고대인의 세계를 그렸을 때 그들의 세계는 저기에 있고 우리의 세계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두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엑스타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끌려나와 어떻게든 신들의 세계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황홀경, 즉 유체이탈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의 종교관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이 유체이탈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이 가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그들로부터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OBB, 즉 전투 전의 오라클입니다. 왕은 그가 전투에 나가면 신들이 그를 축복할지 여부를 종교 관리들로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 종교 관리들에게 가서 묻곤 했습니다. '내가 전투에 나가야 합니까?' 이론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종교 관리가 하늘로 끌려간 다음 신들이 왕이 전투에 나가야 하는지 여부를 그 관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황홀경의 의미라면 아마도 마리의 직원들은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들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자들은 마리의 자료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준으로 본다.

괜찮은? 나는 극단적으로 성경에 황홀경의 개념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황홀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등의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달성하려고 했던 기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윤리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의 이들 임원들은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투에 나가야 할까요? 이걸 해야 하나 저거 해야 하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율법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윤리학자입니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황홀하다고 부르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둘째, 그들은 왕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 중 일부가 떠오릅니다. 이들은 왕의 조언자와 조언자로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을 황홀하다고 부르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 자료를 볼 때 그것이 텍스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방식 때문에 성경 페이지에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황홀경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구절로 제시되는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저는 민수기의 구절과 사무엘상 10장, 열왕기하 3장과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봅니다. 열왕기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표준이 아닌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에스겔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발생한 사건의 예를 살펴보면 각각은 상황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마리에는 실제로 선지자가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황홀경에 빠져 있지 않다면 왜 우리가 마리 문서를 보고 싶겠습니까? 글썬요, 이에 대한 대답은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 서판의 가장 흥미로운 공헌 중 하나가 언약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 노트에서 더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즉, 언약언어는 언약에 맞는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언어이다. 아버지, 아들, 형제, 사랑, 미움 등과 같은 몇 가지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개인과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법률 언어와 마찬가지로 법률 언어도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법률 용어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법률 용어의 개념과 어휘를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공부하는 데 3~4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음, 언약의 언어는 고대 근동에서도 그 자체의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둘 다 언약을 맺었을 때 나는 그냥 시글라를 그릴 것입니다. 둘 다 동등했습니다. 이쪽은 Joe이고 이쪽은 Bob입니다. 그들은 방금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묘사하는 언약의 언어는 형제입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맺었으므로 만일 동등하다면 서로 형제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예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특별한 언약의 예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등하였고 만일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형제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등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아요? 보시다시피 패리티는 영어 단어 쌍 PAIR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등한 쌍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위자였다면,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리고,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들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것은 종주권 조약입니다. 이것은 주권을 말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약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리고, 이 사람은 종주였으므로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언어에서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언약에서는 실제로는 쌍을 이루고 이것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주국이었고, 이 사람은 부하였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성약은 신성하기 때문에 성약에 있어야 할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특별 조약을 맺으면 서로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같은 용어를 볼 때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언약의 언어라면 그것은 언약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고 생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언어는 특별한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로서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점에서 이것이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용어가 삼위일체의 기능 방식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원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운 마리의 언약 언어 중 가장 유익한 용어 중 일부는 사랑과 증오와 같은 간단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보게 된 것은 사랑과 미움이 언약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수직적으로 옮겨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다.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미국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글을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깊은

감정적 방식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며, 그런 종류의 사랑은 양과 질의 이상한 혼합입니다.

아,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마리의 왕비 시브투(Sibtu) 라는 여왕은 자신의 부하인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장군에게 '당신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썄, 이것은 왕실 손수건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의 여왕이 '당신은 나의 부하이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충실하거나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은 실제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충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 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잘 듣고 흡수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열 번이나 하십니다.

열 번이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과 함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맥락에서 사랑이 반드시 다른 맥락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신명기 같은 책에 있는데 신명기는 언약을 2대에게 재확인하거나 다시 세우는 책이니 모세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파헤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완전하고 완전하게 언약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괜찮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대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이 한 말입니다. Ashurbanipal이 그의 아들 Esarhaddon과의 조약에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익숙한 것 같나요? 네가 앓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네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아들과 손자와 네 후손과 장래에 살게 될 네 후손에게 이 언약의 이러저러함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다른 왕이나 다른 영주를 자기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괜찮은? 에사르하돈이 기록한 조약에서 신명기의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아슈르바니팔 왕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희 아들과 손자들에게 교훈하라.

신명기 6장 6절은 신명기가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신명기 6장과 신명기의 다른 9개 구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문화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정서적 원천과 사랑의 가장 깊은 부분에 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강력한 감정적 방법으로 하나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괜찮은? 신약성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인격을 이루는 완전한 내면의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신명기를 아는 것보다 신명기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문맥은 네가 언약에 온전히 신실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언약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둘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언약의 동반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모세가 준 모든 율법을 동등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유지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고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파탄나고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고, 저를 보고, 이것으로 다툼이 해결된 듯, 왜 이혼하냐는 말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더 이상 이 여자의 남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충실함은 느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림에서 신실함은 언약에서 나옵니다.

아내와 나는 여러 면에서 놀라운 사역을 해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역도 우리의 부부사역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뚝과 결혼했고 지금 그 수를 세는 중입니다.

350건이 넘습니다. 대략 400건 정도의 결혼으로 마무리될 수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혼에서 나는 부부에게 결혼하면 성약을 맺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실해야 하는 성약입니다. 당신이 진실해야 하는 말은 당신의 감정과는 별도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정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페그와 저는 내일 6월 28일에 창립 48주년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여성과도 다르게 아내에 대해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결혼한 지 48년이 된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성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구약성서의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리에 대한 개념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마치기 전에 이들 중 하나를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말라기서의 한 구절에 관해 나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말라기 1장 30절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따르는 정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빠진 것은 황홀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예언, 기록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냐 하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썄, 이것은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아, 내가 사랑한 일이 있는가, 에서는 미워한 일이 있었느냐.

음, 다시 한 번, 맥락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 것은 고대 세계의 텍스트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현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였느냐, 에서를 미워하였느냐는 사랑과 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에서와는 그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에서와 그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즉, 좀 더 정확한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법의 맥락에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하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글쎄, 당연히 그것은 혼란스러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께서는 단지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부모님을 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프를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부장적 문화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가 가졌던 문화인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법적으로 자녀를 소유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딸이 결혼할 때 구혼자가 족장에게서 딸을 사야 했습니다. 당신은 신부값, 즉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지참금이 아니라 신부값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부장적 모델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 문화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그릴 것입니다.

자, 여기 P가 있습니다. P는 Patriarch를 뜻합니다. 농업 사회에서 가장에게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다섯 자녀가 가부장을 중심으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항상 가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부장적 문화에서는 족장의 다섯 자녀가 모두 육체적으로 그와 가까이 지내곤 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관해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족장과 예수님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전형적인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너희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너희가 너희에 대한 족장적 주장을 거부하고 족장을 떠나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리 기록 보관소와 같은 법적 문서에서 배운 내용 때문에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언약에 대해 배우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 서판은 법적 맥락에서 기능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중요하게도 그것이 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부장적 세계가 메시아의 길에서 기능했던 합법적인 방식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당신이 가부장적 모델을 따르고 있고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어야 한다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글쎄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소, 다른 많은 태블릿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약 언어로 인해 기능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 기록보관소는 어원이 어떻게 불충분한지를 설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문맥은 단어가 의미와 뉘앙스를 얻는 곳입니다. 아직 청중들에게서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결혼 생활에서 말의 의미는 인생 파트너의 맥락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 태블릿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 온 이러한 내용 중 일부의 진실을 여러분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누마 엘리쉬를 우회하려고 합니다. 이 문서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창세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기록에 관한 문서이므로 여기에서 창조 기록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순서를 볼 수 있으며, 30세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람들은 바벨론의 창조 기록과 성경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지금은 그 중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기록 중 하나인 에누마 엘리쉬에 관한 정보는 생략하고 대신 바빌로니아의 홍수 기록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빌로니아 홍수 기록과 성경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나 길가메시 서사시는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일련의 홍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는 네 가지 주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과 메소포타미아에는 바빌로니아인과 성경 모두 홍수가 인간 문명을 파괴했다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홍수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는 네 가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수메르어로 쓰여진 수메르어 버전의 매우 단편적인 사본이 있습니다. 태블릿은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어로 홍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Atra-Hasi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오래된 바빌로니아 버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우가리트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아트라하시스의 홍수 창조 과정을 다룬 종합 서사시이다.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ic)라고 불리는 네오 아시리아 버전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11판에서만 홍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ic)는 실제로 창조와 그 이야기의 영웅인 길가메시(Gilgamesh)에 관한 긴 이야기(고대의 가장 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서판 중 하나만이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은 기원전 3세기에 베로수스(Berosus)라는 바빌로니아 성직자가 쓴 훨씬 이후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대홍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세 가지 기록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내어 서사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결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서사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는 실제로 서사시적인 비율의 서사시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길가메쉬라는 영웅에 관한 것이고 그의 공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스타입니다. 길가메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타는 신이 아니라 길가메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길가메시는 일종의 반신이자 반인인 누군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길가메시는 독특합니다. 그는 강력합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너무 성공적이어서 신들은 그의 크기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사시에서 그를 위한 적을 창조하는데, 그의 이름은 엔키두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가 특별하기 때문에 엔키두도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키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농업 공동체가 아니며 아마도 이 테이프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여러분은 강력한 황소 옆에 가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크고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글썄, 고대에 황소는 최고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화에서는 성적인 황소이자 위대한 인물인 바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엔키두는 반은 황소이고 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길가메시가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세계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WWF, 즉 세계 레슬링 연맹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체 서판에는 길가메시와 엔키두 사이의 이 거대한 레슬링 시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하게 됩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알고 보니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그를 만든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에게 최후의 귀환을 주었고 엔키두를 죽였다.

음, 길가메시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길가메시에게 기념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길가메시는 아마도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엔키두를 잃고 길가메시는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결코 죽지 않는 사람,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우트나피쉬티이다. Utnapishtim은 말 그대로 삶의 날입니다. 그리고 Utnapishtim은 노아와 같습니다.

그는 대홍수를 겪었고 살아남았으며 영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서사시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위 유사점을 맥락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사점은 있지만 이 두 설명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쉬티는 신들 중 한 신으로부터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인류에게는 소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이 너무 많은 소음을 내기 때문에 신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글썄, 기숙사 생활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 때문에 지구를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매우 존경받는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깨어 있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거나 인간이 너무 많아서 지구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Utnapishtim은 홍수 소식을 듣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 Dr. Fink가 배를 부르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해군 직원이었고, 원양항해 선박을 보트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모욕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Utnapishtim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배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쉬티를 찾아 그에게 묻습니다. 영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았고, Utnapishtim은 페르시아 만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작은 배를 타고 우트나피슈팀으로 노를 젓고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 우트나피슈팀, 그건 정말 진지한 언어이니까요, 오. 오 우트나피슈팀, 영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트나피슈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신화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매우 창의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믿을만한 것은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어떤가요? 글썄요, 분명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화에서 길가메시는 우리가 페르시아 만이라고 부르는 바다, 즉 페르시아 만으로 노를 저어 나갔고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 밑바닥까지 헤엄쳐 가서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뽑습니다.

그는 가지를 가지고 배로 돌아가지만 너무 지쳐서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지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아, 타님이라는 바다 괴물이 무시무시하고 추악한 머리를 배의 고래 위로 들어올리고, 그 괴물의 이름인 타님이 그 나뭇가지를 먹어치우고, 바다 괴물은 영원히 살게 되고, 길가메시는 위탁된다. 모든 육체의 길로 가느니라. 뭐, 밑바닥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바다에 사는 타님이 언제든지 내려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야기에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글썄, 나는 내가 공개한 당신의 메모에 당신과 비슷한 점을 나열했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느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큰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줄어들자 배는 산에 좌초됩니다.

홍수가 가라앉았는지,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번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들을 파견합니다. 나는 이것이 꽤 인상적인 유사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만 꽤 심각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홍수의 원인.

성경을 보면 홍수가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들의 계획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들은 인류에게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애쓰는 반면, 노아는 인류에게 경고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글쎄, 그것은 꽤 심각한 차이입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비밀을 지키고 있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Utnapishtim은 동료에 대한 신 중 한 사람의 숙임수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예품의 크기와 종류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꽤 빨리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 설명된 대로 방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면, 그것은 그것을 꽤 잘 재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켄터키 주 신시내티 남쪽에 재현되어 있으며, 배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매우 믿을만합니다.

Utnapishtim의 치수를 측정한 경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 제작자들이 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직사각형의 초고층 건물과 비슷하며, 물에 뜨지 않습니다. 꽤 심각한 차이죠? 새의 세세한 부분까지... 뭐, 구하는 개체수 등이 다릅니다. 새를 보내는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트로의 출발을 둘러싼 사건은 다릅니다. 인류의 보충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성서 기록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큰 일입니다.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이 인장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절대요.

글쎄, 신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정을 폐쇄할 준비를 하면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비디오에 만들 세구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리겠습니다.

그리고 segue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차이점은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극적인 유사성과 극적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할 일은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위해 저장하겠습니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설명 또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다루는 설명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0, 바빌로니아 시대 문학입니다.